

## 이스라엘 구원을 꿈꾸며

- 강사라 선교사 / 2003. 3. 27 -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사라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남편 류모세 선교사와 아들, 딸 4가족이 3년 전 2000년 1월말에 파송 받아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현재 저와 아이들만 집안행사와 사역의 보충을 위해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저는 어릴 적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막연히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1993년부터 참석하게 된 이스라엘 기도모임에서 로마서 10장15절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때 소명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학창시절 캠퍼스 내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우리는 결혼 후 그 소명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한마음으로 이스라엘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육백만의 조그만 땅,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은 0.1%의소수의 크리스찬이 있고 테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2600년 전 예언했던 에스겔서36:23,24, 예레미야16:14-16절의 “흩어졌던 열방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가 정을 쓰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일하고 계셨습니다.

떠나기 전 남편은 한의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전문적인기술로 유대인을 섬기게 해 달라고 ,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생활한지 채 몇 달이 지나 주위의 이웃을 통해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한 두명씩 찾아오고 조금씩 끊이지 않게 왔습니다. 무료 진료를 기본으로 한 치료에 그들은 자기의 성의껏 감사표시를 했으며 쉽게 친구와 같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그들을 통해 유대인과 이스라엘 문화, 풍습 등을 배웠으며 그들은 치료와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의 축복을 받게 된거죠.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받는 첫 번째 질문은 '왜 너희가 선진국도 아닌 이스라엘에 왔냐'입니다. 외국인들의 선교활동이 금지된 이스라엘에서 비자와 신분상 저희는 학생의 신분으로 있으며 항상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더 알고 살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반신반의, 신기해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 후 그들은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며,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라는 질문을 먼저 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저희와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계속 기도하며 집중적으로 교제중인 몇몇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중국 의술이 들어와 단과대학수준의 한의과대학이 있으며 소그룹으로 유대인한의사들을 가르쳤으며 현재 개인 레슨으로 한국과 한의학에 심취한 유대인 한의사를 가르칩니다.

또한 캠퍼스 내 실험실의 젊은이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접촉하고 있습니다.

짧은 3년을 잠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님은 2년5개월 동안 계속된 테러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셨고, 현재도 미국과 이라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과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복음의 일꾼으로써 주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선교를 준비하는 믿음 안의 동역자들에게 어떠한 경우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명의 확신과 이를 위한 깊이 있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첫 번째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한 모습은 주님께 정확히 아뢰고 훈련받길 바랍니다. 전투에 나갈 병사가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현지에 나가기 전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위해 기도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여러분들께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샬롬.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